

공직자들 “청림 코스 걸으며 초심을 떠올렸다”



장성군의 청림 투어 프로그램은 특강과 현장 탐방, 축령산 신책 등 다양하게 구성돼 공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2일 오후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를 둘러본 뒤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찾은 전국 지자체 예비 사무관들.

장성군 공직자 청림 교육과정 인기 비결

묻혀있던 자원 발굴해 교육·관광 융화 숙박·음식업소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장성군의 ‘청림교육’과정을 거쳐간 공직자들은 하나 같이 ‘초심’을 떠올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 공직에 입문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줬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 역시 이들이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친절하게 반겼다. 장성이 자치 역사 속에 묻혀 수도 있었던 지역 출신 청백리의 삶과 문화유적 등을 잘 다듬어 지역상품으로 만들면서 이곳을 찾는 공직자와 기업 직원, 그리고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묻혀있던 지역 내 청림 자원 발굴=인구 4만7000여 명의 장성군은 지난 1995년부터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로 이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밑천이 된 셈이다.

여기에 호남의 대표서원이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 아곡 박수량의 백비, 삼마태수(三馬太守, 부임지로 갈 때 어머니와 부인 등이 타고 가는 말 3마리로 간소하게 행차

한 지방관)로 유명한 지지당 송흥의 관수정, 기영정 등은 ‘청림’의 재료가 되기에 충분했다.

장성군이 조선시대 명종이 청백리 박수량을 기려 하사한 99칸의 청백당을 교육 대상자 전용 숙박시설인 ‘청백 한옥’으로 재탄생시키고, 청림 코스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매년 청림도를 평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800여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찾아다니며 교육 대상자를 유지했다. 교육생들이 도착하면 군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프로그램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도움돼야 진정한 지역정책=김양수 장성군수는 지난 2일 오후 청림특강이 열린 장성군 문화고등학교를 찾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무관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인사말은 장성군이 장성 아카데미의 핵심 강의를 골라 발간한 책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와

장성군 청림벨트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민들레차에 대한 ‘관측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김 군수는 “장성에 왔으면 지역 특산품을 사가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2만 원이면 선비 고장의 대표 특산물인 책과 차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성군은 청림 투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지

금까지 1년7개월여 간 1만5856명이 숙박·음식업소, 특산물 점포 등 102개 업소를 찾아 쓴 돈은 모두 6억500만 4000원. 군은 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토대로 이를 늘려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역민들이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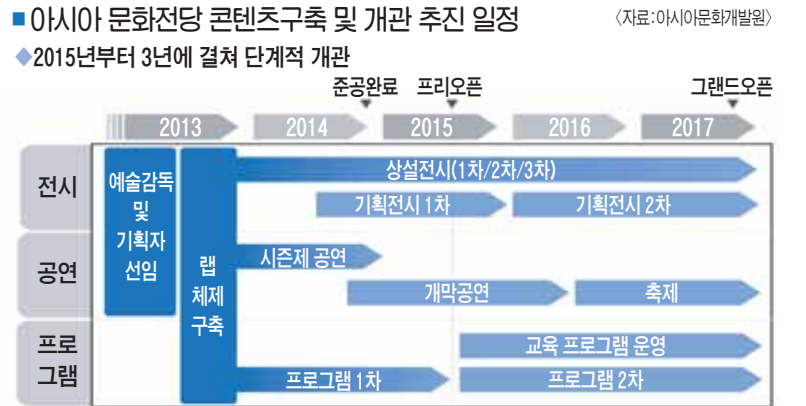
◇“공직자의 기본은 청림”=정중한 편백나무 숲이 자리한 축령산과 다양한 지역자원으로 구성된 청림 프로그램을 경험한 공직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 2일 장성을 찾은 부산시청 예비사무관 성경식(57)씨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번 교육처럼 감동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까지 여기 서 있을 배비와 가족들에게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이민숙(45)씨와 인천시청 윤병철(46)씨 역시 “일부 처신을 잘못된 공직자들이 이곳에 들러 마음을 다 잡기를 바란다”며 “공직자의 기본이 청림임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은 선진국으로 향해 갈수록 청림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청림 프로그램을 군 대표 자원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감의가 아닌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의 공직자들도 장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문화전당 개관해도 개점휴업?

2017년까지 단계적 개관 논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단계별 개관 논란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에 이 계획을 보고하면서 추진 일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친 단계적 개관을 제시했다.

2013년 예술감독 및 기획자 선임→2014년 문화전당 준공완료→2015년 프리오픈→2017년 그랜드 오픈 등 일정도 제시했다. 문화전당의 콘텐츠인 축제·전시·교육프로그램 등은 2017년 완결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을 맡고 있는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개발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관을 미루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개발원은 종합계획에서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민주평화교육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을 모두 채울 콘텐츠는 사실상 제시하지 못했다. 문화전당 개관을 목전에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까지도 전당의 전담인력 300여명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차일피일 전담인력 선발을 미루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문 개관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 개관은 개발원의 단순한 의견일 뿐”이라면서 “콘텐츠 구축예산을 제때 확보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콘텐츠를 구축할 물리적인 시간도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2015년 개관을 약속해놓고 부분 개관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책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통사고를 확 줄이기 위하여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전조등은 생명을 살릴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수단이며 안전운전을 위한
팁이자 광주시민의 선진교통 매너입니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되며,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이 된다.
※주간전조등이란? 주간시간(Daytime)대 운전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

그럼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를 28%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 1조2,500억원 감소 (09 교통안전공단)

전조등은 언제 켜나요?

1년중 맑은 날 평균 97.3일 (기상청 통계 최근 10년)
전조등은 비오는날, 눈오는날, 안개낀날, 흐린날, 일출전이나 일몰시 등에는 반드시 켜고, 날씨가 맑아도 시간에 관계없이 1년 365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우리나라 운전자 일일시간대에 약 60%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

연료비는 어느정도? 비용대비 안전성 확보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 주행시 0.1ℓ (약 200원) 소요

해외 선진국은?

미국은 1960초 텍사스 주부터 주간 전조등 사용
※ 180여개 사업용 운수업체 대상 현황 분석결과 38% 감소
※ 캐나다 주정부 소유차 4,000여대 대상 연구결과 25%사고 감소
전조등 의무화 국가: 핀란드(1972), 스웨덴(1977), 노르웨이(1985) 덴마크(1990)등
※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의무화 검토중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